







온 나라에 뜻깊은 경사가 났다.  
전반적 1·2년제의무교육의 전면적 실시  
라는 역사적인 사건이 도래한 것이다.

이제 4월 1일이면 얼마나 환희에 넘칠 것인가.

학교마다 1·2년제 꽃대문이 세워지고  
축하의 메르트가 늘어진 표정으로 우리와의 키  
여운 신입생들이 손에 손잡고 들어서고...

생각만 해보아도 가슴부르는 이 경사에  
한번 기의 또 다른 기쁨이 더해졌다.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와 같은 멋쟁이가  
방이 안겨진 것이다. 비단우에 꽃이라고 넘  
치는 이 기쁨 무엇인가 표현하려.

지난 1월 평양가방공장을 찾았었던 그날  
에 벌써 행복한 아이들의 모습 그려보시며  
마음이 흥그려 웃진다고, 오늘을 잊을 것  
같지 못하다고 하시던 경애하는 원수님의  
태양처럼 활한 모습이 드뜨게 아온다.

우리 아이들이 우리와 같은 멋쟁이가방  
을 예고 1·2년제 꽃대문에 들어선다!

어찌 보면 행복의 단시와 같은 크지  
않은 꽃이다.

운 세계를 풀었다놓는 특대시민들이 꼬리  
를 물고 떠나는 격동적인 이 세월에 그것  
이 그토록 이를 할 수 없는 흥분과 충격을 불  
리입으키는 것은 무었에 끈기인가.

작고도 큰 메아리가 있다.

우리의 것에 대한 긍지를 안고 존엄있게  
살아가는 인민의 영광, 제국주의의 제재를  
물리기로 만들며 마음먹은데로 행복의  
새로운 세상을 살아가는 조선의 본래가 및 밟았는  
우리 아이들의 새 책가방이다.

그 이름부터 불러본다.

소나무!

우리 원수님 미치 데여난 아기에 세상  
에서 제일 좋고 훌륭한 이름을 달아주려  
마음쓰는 어민이와도 같이 수천집 바다속  
에서 진주를 찾듯 우리가 만든 새 가방에  
봉소고고 끌어 달아주신 이름이다.

그 깊은 뜻이 실금을 울린다.

소나무는 우리 나라의 국수이다.

그 주고 얹기 기상처럼 우리와의 귀여운  
풀봉오리들이 자기의 것이 제일이라는 자존  
심을 빼내처럼 굽게 간직하고 소나무처럼  
굳세게, 소나무처럼 무력 무력 자라기기를  
바라주시는 걸은 뜻이 뜨겁게 어려운다.

정말 걸을 바도, 암을 바도 날의 것이  
조금도 부럽지 않은 우리 아이들의 «소나

# 《소나무》책가방

무》책가방이다.

모양넓고 질 좋은 가방에 통심에 맞게  
그려진 소년장수와 명랑한 너구리, 금시리  
도 솔잎의 향기가 풍길듯싶은 가방상표...

가방안에는 그것대로 우리와의 것, 우리 가  
민은 질 좋은 학용품들로 꽉 차있다.

이 하나의 화폭만으로도 우리는 벌써  
승리했다.

우리의 행복을 짓밟으려고 달리는 원쑤  
들의 정수리를 내리치는 또 하나의 철수입니다.

같은 아이들의 «소나무» 책가방!

어기에는 우리 아이들의 품만이 아닌  
전진하는 사회주의조선의 역설 기상, 그  
아름 고난과 시련에도 끄떡없이 온 나라  
인민들이 더 높이 힘려가는 «세상에 무역  
없어라»의 노래가 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 동지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우리 아이들과 인민들을 세상에  
부림없이 잘살게 하는것이 우리 당의  
무량대표입니다.»

미온다. 우리 어머니들의 엊울수 없는  
추억이 있다.

생각만 해보아도 가슴저리오는 고난의  
행군의 나날 파연 가마에 안킬 쌀이 없어  
사랑하는 자식들에게 풀죽을 먹여야 했던  
그 어이만이 쓰리고 피로웠던가.

나도 학생이 되었다고 기뻐하는 자식을  
남부령지 않게 내세우지 못하는 마음으로  
어미나들의 기쁨은 타들었다.

작은 힘으로 우리 어머니들의 엊울수 없는  
추억이 있다.

생각만 해보아도 가슴저리오는 고난의  
행군의 나날 파연 가마에 안킬 쌀이 없어  
사랑하는 자식들에게 풀죽을 먹여야 했던  
그 어이만이 쓰리고 피로웠던가.

나도 학생이 되었다고 기뻐하는 자식을  
남부령지 않게 내세우지 못하는 마음으로  
어미나들의 기쁨은 타들었다.

작은 힘으로 우리 어머니들의 엊울수 없는  
추억이 있다.

생각만 해보아도 가슴저리오는 고난의  
행군의 나날 파연 가마에 안킬 쌀이 없어  
사랑하는 자식들에게 풀죽을 먹여야 했던  
그 어이만이 쓰리고 피로웠던가.

나도 학생이 되었다고 기뻐하는 자식을  
남부령지 않게 내세우지 못하는 마음으로  
어미나들의 기쁨은 타들었다.

작은 힘으로 우리 어머니들의 엊울수 없는  
추억이 있다.

생각만 해보아도 가슴저리오는 고난의  
행군의 나날 파연 가마에 안킬 쌀이 없어  
사랑하는 자식들에게 풀죽을 먹여야 했던  
그 어이만이 쓰리고 피로웠던가.

나도 학생이 되었다고 기뻐하는 자식을  
남부령지 않게 내세우지 못하는 마음으로  
어미나들의 기쁨은 타들었다.

작은 힘으로 우리 어머니들의 엊울수 없는  
추억이 있다.

생각만 해보아도 가슴저리오는 고난의  
행군의 나날 파연 가마에 안킬 쌀이 없어  
사랑하는 자식들에게 풀죽을 먹여야 했던  
그 어이만이 쓰리고 피로웠던가.

나도 학생이 되었다고 기뻐하는 자식을  
남부령지 않게 내세우지 못하는 마음으로  
어미나들의 기쁨은 타들었다.

작은 힘으로 우리 어머니들의 엊울수 없는  
추억이 있다.

생각만 해보아도 가슴저리오는 고난의  
행군의 나날 파연 가마에 안킬 쌀이 없어  
사랑하는 자식들에게 풀죽을 먹여야 했던  
그 어이만이 쓰리고 피로웠던가.

나도 학생이 되었다고 기뻐하는 자식을  
남부령지 않게 내세우지 못하는 마음으로  
어미나들의 기쁨은 타들었다.

작은 힘으로 우리 어머니들의 엊울수 없는  
추억이 있다.

생각만 해보아도 가슴저리오는 고난의  
행군의 나날 파연 가마에 안킬 쌀이 없어  
사랑하는 자식들에게 풀죽을 먹여야 했던  
그 어이만이 쓰리고 피로웠던가.

나도 학생이 되었다고 기뻐하는 자식을  
남부령지 않게 내세우지 못하는 마음으로  
어미나들의 기쁨은 타들었다.

작은 힘으로 우리 어머니들의 엊울수 없는  
추억이 있다.

생각만 해보아도 가슴저리오는 고난의  
행군의 나날 파연 가마에 안킬 쌀이 없어  
사랑하는 자식들에게 풀죽을 먹여야 했던  
그 어이만이 쓰리고 피로웠던가.

나도 학생이 되었다고 기뻐하는 자식을  
남부령지 않게 내세우지 못하는 마음으로  
어미나들의 기쁨은 타들었다.

작은 힘으로 우리 어머니들의 엊울수 없는  
추억이 있다.

생각만 해보아도 가슴저리오는 고난의  
행군의 나날 파연 가마에 안킬 쌀이 없어  
사랑하는 자식들에게 풀죽을 먹여야 했던  
그 어이만이 쓰리고 피로웠던가.

나도 학생이 되었다고 기뻐하는 자식을  
남부령지 않게 내세우지 못하는 마음으로  
어미나들의 기쁨은 타들었다.

작은 힘으로 우리 어머니들의 엊울수 없는  
추억이 있다.

생각만 해보아도 가슴저리오는 고난의  
행군의 나날 파연 가마에 안킬 쌀이 없어  
사랑하는 자식들에게 풀죽을 먹여야 했던  
그 어이만이 쓰리고 피로웠던가.

나도 학생이 되었다고 기뻐하는 자식을  
남부령지 않게 내세우지 못하는 마음으로  
어미나들의 기쁨은 타들었다.

작은 힘으로 우리 어머니들의 엊울수 없는  
추억이 있다.

생각만 해보아도 가슴저리오는 고난의  
행군의 나날 파연 가마에 안킬 쌀이 없어  
사랑하는 자식들에게 풀죽을 먹여야 했던  
그 어이만이 쓰리고 피로웠던가.

나도 학생이 되었다고 기뻐하는 자식을  
남부령지 않게 내세우지 못하는 마음으로  
어미나들의 기쁨은 타들었다.

작은 힘으로 우리 어머니들의 엊울수 없는  
추억이 있다.

생각만 해보아도 가슴저리오는 고난의  
행군의 나날 파연 가마에 안킬 쌀이 없어  
사랑하는 자식들에게 풀죽을 먹여야 했던  
그 어이만이 쓰리고 피로웠던가.

나도 학생이 되었다고 기뻐하는 자식을  
남부령지 않게 내세우지 못하는 마음으로  
어미나들의 기쁨은 타들었다.

작은 힘으로 우리 어머니들의 엊울수 없는  
추억이 있다.

생각만 해보아도 가슴저리오는 고난의  
행군의 나날 파연 가마에 안킬 쌀이 없어  
사랑하는 자식들에게 풀죽을 먹여야 했던  
그 어이만이 쓰리고 피로웠던가.

나도 학생이 되었다고 기뻐하는 자식을  
남부령지 않게 내세우지 못하는 마음으로  
어미나들의 기쁨은 타들었다.

작은 힘으로 우리 어머니들의 엊울수 없는  
추억이 있다.

생각만 해보아도 가슴저리오는 고난의  
행군의 나날 파연 가마에 안킬 쌀이 없어  
사랑하는 자식들에게 풀죽을 먹여야 했던  
그 어이만이 쓰리고 피로웠던가.

나도 학생이 되었다고 기뻐하는 자식을  
남부령지 않게 내세우지 못하는 마음으로  
어미나들의 기쁨은 타들었다.

작은 힘으로 우리 어머니들의 엊울수 없는  
추억이 있다.

생각만 해보아도 가슴저리오는 고난의  
행군의 나날 파연 가마에 안킬 쌀이 없어  
사랑하는 자식들에게 풀죽을 먹여야 했던  
그 어이만이 쓰리고 피로웠던가.

나도 학생이 되었다고 기뻐하는 자식을  
남부령지 않게 내세우지 못하는 마음으로  
어미나들의 기쁨은 타들었다.

작은 힘으로 우리 어머니들의 엊울수 없는  
추억이 있다.

생각만 해보아도 가슴저리오는 고난의  
행군의 나날 파연 가마에 안킬 쌀이 없어  
사랑하는 자식들에게 풀죽을 먹여야 했던  
그 어이만이 쓰리고 피로웠던가.

나도 학생이 되었다고 기뻐하는 자식을  
남부령지 않게 내세우지 못하는 마음으로  
어미나들의 기쁨은 타들었다.

작은 힘으로 우리 어머니들의 엊울수 없는  
추억이 있다.

생각만 해보아도 가슴저리오는 고난의  
행군의 나날 파연 가마에 안킬 쌀이 없어  
사랑하는 자식들에게 풀죽을 먹여야 했던  
그 어이만이 쓰리고 피로웠던가.

나도 학생이 되었다고 기뻐하는 자식을  
남부령지 않게 내세우지 못하는 마음으로  
어미나들의 기쁨은 타들었다.

작은 힘으로 우리 어머니들의 엊울수 없는  
추억이 있다.

생각만 해보아도 가슴저리오는 고난의  
행군의 나날 파연 가마에 안킬 쌀이 없어  
사랑하는 자식들에게 풀죽을 먹여야 했던  
그 어이만이 쓰리고 피로웠던가.

나도 학생이 되었다고 기뻐하는 자식을  
남부령지 않게 내세우지 못하는 마음으로  
어미나들의 기쁨은 타들었다.

작은 힘으로 우리 어머니들의 엊울수 없는  
추억이 있다.

생각만 해보아도 가슴저리오는 고난의  
행군의 나날 파연 가마에 안킬 쌀이 없어  
사랑하는 자식들에게 풀죽을 먹여야 했던  
그 어이만이 쓰리고 피로웠던가.

나도 학생이 되었다고 기뻐하는 자식을  
남부령지 않게 내세우지 못하는 마음으로  
어미나들의 기쁨은 타들었다.

작은 힘으로 우리 어머니들의 엊울수 없는  
추억이 있다.

생각만 해보아도 가슴저리오는 고난의  
행군의 나날 파연 가마에 안킬 쌀이 없어  
사랑하는 자식들에게 풀죽을 먹여야 했던  
그 어이만이 쓰리고 피로웠던가.

나도 학생이 되었다고 기뻐하는 자식을  
남부령지 않게 내세우지 못하는 마음으로  
어미나들의 기쁨은 타들었다.

작은 힘으로 우리 어머니들의 엊울수 없는  
추억이 있다.

생각만 해보아도 가슴저리오는 고난의  
행군의 나날 파연 가마에 안킬 쌀이 없어  
사랑하는 자식들에게 풀죽을 먹여야 했던  
그 어이만이 쓰리고 피로웠던가.

나도 학생이 되었다고 기뻐하는 자식을  
남부령지 않게 내세우지 못하는 마음으로  
어미나들의 기쁨은 타들었다.

작은 힘으로 우리 어머니들의 엊울수 없는  
추억이 있다.

생각만 해보아도 가슴저리오는 고난의  
행군의 나날 파연 가마에 안킬 쌀이 없어  
사랑하는 자식들에게 풀죽을 먹여야 했던  
그 어이만이 쓰리고 피로웠던가.

나도 학생이 되었다고 기뻐하는 자식을  
남부령지 않게 내세우지 못하는 마음으로  
어미나들의 기쁨은 타들었다.

작은 힘으로 우리 어머니들의 엊울수 없는  
추억이 있다.

생각만 해보아도 가슴저리오는 고난의  
행군의 나날 파연 가마에 안킬 쌀이 없어  
사랑하는 자식들에게 풀죽을 먹여야 했던  
그 어이만이 쓰리고 피로웠던가.

나도 학생이 되었다고 기뻐하는 자식을  
남부령지 않게 내세우지 못하는 마음으로  
어미나들의 기쁨은 타들었다.

작은 힘으로 우리 어머니들의 엊울수 없는  
추억이 있다.

생각만 해보아도 가슴저리오는 고난의  
행군의 나날 파연 가마에 안



# 자멸을 재촉하는 전쟁 미치광이들의 망동

우리 공화국을 빙대하는 합동군사 연습을 광범위로 벌려놓고 있는 미국은 무력증강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다.

최근 남조선강철 미군이 군산기지에 최신형 무인공격기들을 배치하기 시작한 것은 그 단체실례이다. 오전 평들은 『그레이 이글』이라고 불리우는 이 최신형 무인공격기가 차관단성이 조선반도를 포함하고 있으며 빙탕고마비파 소형정밀유도 폭탄을 장비하고 있어 우리 공화국의 중요재산들을 대체 적격 타격이 가능하다고 들고있다.

정세를 구한판으로 물어가는 전쟁미치광이들의 위험천만한 또 하나의 군사적방동이라 하지 않을수 없다.

조선반도에는 전쟁경쟁으로 치닫고있다. 적들이 최신형무인폭격기까지 들여미는 것은 그들의 북침전쟁 핵동이 위험계선을 넘어서고 있음을 시사해주고 있다.

미국은 상류적인 수법대로 저들의 심상치 않은 군사적움직임을 험리화 해보려고 구차스러운 궤변을 내돌리고 있다. 미주본성은 최신형무인폭격기 기제와 때를 같이하여 대변인을 내세워 그것이 『방어』를 위한것이라고 들었다. 다시말하여 우리의 『해 및 미씨일위협』을 막고 지역의 『평화를 보장』하기 위해 무인공격기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무인공격기로 『방어』상표를 붙이는 것은 상류종사에게도 통할수 없는 횡당한 수작이다. 미국은 무인공격기 가 『적』후방에 걸친 침투수자를 전부와 함께하여 작전을 벌리게 된다는 것을 숨기지 않고 있다. 미국은 그 어떤 변명으로도 저들의 호전적 정체를 거슬러올라 없다.

우리는 조선반도의 공고한 평화를

위한 회기적인 제안을 내놓고 그 실현을 위해 시종일관 노력하고 있다.

우리의 거듭되는 발기와 제안들, 그 실현을 위한 인내성있는 노력들은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서 국제적지지와 공감을 불

여러모로써 국제적지지와 공감을